

지역 소식통

재정집행 내역 알기 쉽게
정읍시, 회계결산서 제작

정읍시의 지난해 시정 예산에 대한 재정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가 발간됐다.

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간소화한 '알기 쉬운 2019 정읍시 살림 정보'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 회계결산서는 2,000여 쪽이 넘는 분량과 복잡한 구성, 어려운 전문 회계용어로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홈페이지를 통해 시 제정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과 책자의 구성,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기존 결산서와 별도로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표현한 2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발간해 30일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이색벤치 설치

정읍시가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색벤치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심지 중앙로(테마빌 네거리~호호텔)와 내장산 문화관광 정읍시공원 등에 17종 26개소의 이색벤치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정읍천 둔치(죽림교~정동교) 약 1.8km 구간에 8종 23개소의 이색벤치를 추가 설치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약자 등 보행 약자에게는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벤치는 기존 벤치와는 달리 태양광 모듈이 장착돼 낮 시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그린뉴딜 거점도시, 부안”

민주당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 부안서 스타트 권익현 군수,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등 지원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달 30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상생 위한 지역균형뉴딜 최고위원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5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전국을 순회하는 권역별 현장 최고위원회 첫 방문지로 부안군을 택한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의원 등을 역임한 권익현 군수의 탄탄한 당내 입지가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종민·염태영·신동근·양향자·박홍배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에 정책위의장, 홍영표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 신영대·강신우 대변인, 한준호 K-뉴딜본부 대변인, 김성주 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고위원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고효율 확장 개발, 동화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직소천 안전 아영장 조성사

업, 노을대교 국도 건설 등 5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해양석산 부지를 활용해 고품자연료 전지 열과 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안군이 그린뉴딜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 이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 현황 등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화울타리 회원들이 국화작품 3000여점을 부안자연마당에 오는 11월 15일까지 조성해 가을정취가 풍겨나는 매력부안을 만든다

국화꽃 향기 가득한 산책길 걸어요~

부안군, 작품 3000점 자연마당에 조성... 15일까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국화울타리 회원들이 한 해 동안 가꾸고 만든 국화작품 3000여점을 부안자연마당에 오는 15일까지 조성해 가을정취가 풍겨나는 매력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국화축제 취소로 인한 국화작품을 부안군민들이 산책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마당에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심신을 잠

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화울타리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화축제가 취소돼 아쉬움이 많았다”며 “회원들이 만든 작품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상하면 서고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 공무직노조, 단체 · 임금교섭 상견례

노사 간 상생과 화합 다짐

정읍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국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 · 임금교섭 요구에 따른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정읍시 노사 관계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상견례는 시 측 대표위원 서종원 총무과장 등 7명의 위원과 노조 측 이권로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위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양측의 기본입장과 제안사항을 전달, 교섭 방향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체교섭 요구 핵심 사항인 노조 활동의 보장 및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후생 복지, 임금 등을 포함한 116개 조항에 대해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심도 있는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정읍시는 지난달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국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 · 임금교섭 요구에 따른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극복에 노사가 공감대를 찾아 상생과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

이권로 위원장은 “노사 간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향후 교섭이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섭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서종원 과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교섭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3개분야 장학생 총 88명 선발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유기상)이 올해 88명의 장학생 선발을 완료했다.

장학재단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3개 분야(농생명식품인재육성, 성적우수, 특기(예·체·기능) 총

8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모두 851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각 분야별 선발 내용은 ▲성적우수(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최고 150만원)·고등학생 30명(1500만원), 대학생 40명(5000만원) ▲특기(예·체·기능)인재(도 대

회 이상 경기·경연 1~3위이상, 최대 250만원)=10명(1000만원) ▲농생명식품인재(자격증·수상 성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8명(400만원) 등이다.

앞서 성적우수 대학생의 경우, 올해 30명 선발에 117명이 접수해 예년에 비해 높은 경쟁률과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등학생도 52명이나 접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 극복 정읍시립국악단 위문 공연

LG헬로비전 채널 25번 통해 방송... 14일 11시 45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무관중 공연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꾸준히 연습해 온 시립국악단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신하는 의료진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응원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공연에 앞서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신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8명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표창장은 정읍경찰서(경위 모근영, 순경 송재관), 정읍소방서(소방사 모상기, 전계혁, 오상일), 정읍시보건소(주무관 이서경), 정읍시청(주무관 박찬중, 실무관 강지웅) 등 총 8명이 수여했다.

이날 공연은 최혜숙 시인의 시 낭송을 시작으로 정읍시립국악단 무용부의 내장산 단풍춤, 창극부 및 연주부의 '팔도민요연곡', 연주부의 '삼고 장고놀이' 공연이 진행됐다. 또,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인 정상희 명창과 정읍시립국악원 박상주 교수의 흥보가(박타는 대목), 베스트요브코리아실용예술회의 퓨전 국악 발리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LG헬로비전 채널 25번을 통해 오는 14일 11시 45분에 방송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문화예술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시기에 좋은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